

제55차 KCERN 공개포럼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대한민국의 새로운 유행어로 유니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CB인사이드는 전 세계 유니콘이 309개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포춘 500대 기업이 20년 걸린 기업가치 1조를 평균 6년 만에 달성하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70%는 O2O 융합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기술들이 유니콘이란 새로운 기업군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불과 10년 만에 미국 10대 기업 중 O2O 플랫폼 기업의 비중을 10%에서 70%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유니콘 현상과 동일한 DNA를 가진 4차 산업혁명의 쌍둥이 심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O2O융합을 가로막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가 금융, 의료 분야의 이해관계와 결합하여 유니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KCERN은 2016년 2월부터 데이터 규제개혁 활동과 2018년 1월부터 한국과 총, 공학한림원, 벤처기업협회 공동으로 데이터 족쇄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31 선언으로 공공정보가 적극적으로 개방된다면 공공 부문의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공공 데이터의 비개방으로 가로막힌 민관 협력과 공공 간 협력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스마트화 단계의 진입규제 개혁으로 집약됩니다.

이에 KCERN은 정부의 유니콘 전략으로 규제개혁과 흥산업 전략이라는 양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니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럼 개요

- 일 시: 2019. 3. 26. (화) 14:00~16:00
- 장 소: KAIST 도곡캠퍼스 103호 (3호선 매봉역 도보 5분 거리)
- 주 관: KCERN
- 후 원: 다산네트웍스

시간	내용	사회 및 발표자
14:00~14:05	개회(취지, 참석자 소개 등)	김애선 KCERN 책임연구원
14:05~14:30	유니콘 기업의 성공 DNA	유효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BA 교수
14:30~15:00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김애선 KCERN 책임연구원
15:00~15:45	패널토론 *패널은 좌장 외 가나다 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좌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15:45~15:55	청중 의견 청취 및 답변	좌장 및 패널
15:55~16:00	마무리	좌장